

커지는 미래산업 격차 멀어진 국가균형발전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3> 신산업은 비수도권에 육성하라

지난 3월 AI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00억원 규모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

당시 이윤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시를 염두에 두고 해당 사업을 관련 부처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선정이 유력시 됐지만 결국 AI인프라 등이 편중돼 있는 경기도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선정을 놓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사업 선정시 실증기간 동안 시민 50여만 명의 체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했지만, 이미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과거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실제 당시 평가위원 9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한명도 없고,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 수도권 출신으로 편중돼 있는 평가위원들의 수도권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는 반발도 이어졌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등 11개 기업과 컨소시엄까지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고, 특히 보건 복지·문화·교육·교통 등 총 4개 분야와 의료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시 11대 대표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 끝에 광주가 유력 조정사업 대상지로 급부상 했었다"면서 "그런데,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도권에 선호하는 흐름이 감지됐고, 수도권 출신으로 편중된 심사위원 구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미래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구조적 문제 등으로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도의 산업·경제·일자리·R&D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대부분의 위원이 수도권 출신인데다,

심의회 위원 구성부터 수도권 편중 중앙부처 공무원들 수도권 선호 정부 주도 사업 선정 지방 배제 위원회 수도권·지방 동수 구성 비수도권 우선 적용 특별법 필요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관성적으로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미래 신산업 발전 격차가 갈수록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회 구성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가 동수 적용 제도화, 가칭 미래 신산업 비수도권 우선 적용 특별법 제정, 수도권 개발 이익의 지방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은 YS와 DJ정부가 구분되는 14·15대(1992~2002년)에는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초고속 IT기반화와 벤처, 남북 경험 등 이른바 G7 프로젝트가 주축이 됐다. 이어 16대(2003~2008년)에는 바이오산업, 17대(2009~2013년) 녹색성장, 18대(2014~2017년) 과학기술과 ICT융합의 창조경제, 현 19대(2018년-) 혁신성장 K뉴딜 등이 신성장동력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그동안 이 같은 정부의 신성장 산업의 흐름을 타지 못했고, 그나마 현 정부 들어 광주시의 경우 K뉴딜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수소경제, 미래차 등을 선점했을 뿐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은 정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실제 광주는 자동차산업과 관광업, 가전산업이, 전남은 석유화학산업, 조선·철강, 농수산업 등 1970~80년대 산업이 주력 산업인데, 대부분 과거 산업인 탓에 침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국 대비 광주·전남의 상황을 보면 지역내 총생산(GRDP)부터 총부가가치 추이, 창업기업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의 미래 신산업 분야 유치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을 하면 모든 면에서 비수도권이 불리한 구조로, 결국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미래 신산업에 대해선 비수도권 배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관련 심사위원도 비수도권 전문가의 절반 이상 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안산



강영미



안세영



김정환



전운태

그대들이 자랑스럽다

안산·강영미·안세영·구본길 등 광주·전남 태극전사 감동과 힐링 선사



2020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광주·전남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대회 폐막을 3일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단이 현재까지 수확한 금메달 6개 가운데 4개를 따냈고 은메달 4개 중 1개를 수확했다. <관련 기사 18, 19면>

양궁 3관왕으로 오른 안산(20·광주여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하계올림픽 최초 3관왕, 세계 양궁 사상 첫 3관왕 등 기록을 쏟아냈다. 안산은 양궁 여제로 등극했고, 광주를 대한민국 양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가 금메달 3개를 독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메달 순위경쟁에서 큰 힘을 얻게 됐다.

펜싱 사브르에서 금메달을 일궈낸 구본길(32)·김정환(38)은 전남을 연구지로 둔 국민체육진흥공단 멤버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45-26으로 완파한 주역이다. 이들은 2012년 런던에 이어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역사를 썼다.

도쿄올림픽 중반... 대한민국 금 6개 중 4개 수확

구본길과 김정환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전남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대기만성형'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 강영미(36)는 은메달을 일궈낸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의 맏언니다. 여느 선수 같으면 은퇴를 목전에 둔 나이에도 강영미는 투혼을 발휘해 후배들의 선전을 이끌며 은메달의 주역이 됐다. 그는 33세에 2018카타르-팔렘방 아시안게임 에페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전설의 격객이기도 하다.

목포 여상 출신 염혜선(30·KGC인삼공사)은 지난 4일 타키를 꺾는 파란을 일으킨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주전 세터다. 그는 고교 때 태극마크를 달았을 정도로 유망했으나 프로에서 이다영에게 밀려 빛을 보지 못한 실용을 썼어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코트에서 보여줬다. 경기를 거듭할 수록 진화하는 그의 플레이는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 출신 안세영(19·삼성생명)은 '셔틀콕 미

래'라는 존재감을 확인했다. 비록 8강전에서 천적 천위페이(중국)에게 패했으나 무릎이 깨지면서 코트에서 사투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제 팬들은 2017년 광주체육중 3학년 때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한국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대표팀에 발탁돼 천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안세영의 다음 올림픽 무대를 고대하고 있다.

안산이 양궁에서 새 역사를 썼다면 전운태(26·광주시청)는 근대5종에서 신기원을 달성할 선수로 기대를 모은다. 그는 2020 도쿄올림픽 공식 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예고에서 메달을 닦을 선수로 꼽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일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 플라자에서 열리는 펜싱 랭킹 라운드를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메달 레이스를 펼친다. 근대5종은 사격, 펜싱(에페), 수영, 승마, 육상 경기로 종합점수를 매겨 순위를 결정하는 종목이다.

영양 출신 김세영(28)도 골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경기하고 있으며, 전남을 연구지로 둔 한국전력 육상팀 심종섭(30)도 마라톤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거리두기 현 3단계 유지 '가닥'

일상생활 속 산발적 감염 지속

오늘 정부 조정안 발표 맞춰 결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현 3단계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6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내부 회의를 거쳐 현 3단계 수준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에선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2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여름 휴가시즌과

대학 방학 등에 따른 젊은층의 대규모 모임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강화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광주와 전남에선 이날 오후 2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각각 5명, 10명으로, 일주일 가까이 하루 평균 20명을 넘지 않고 있다.

정부는 6일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3단계로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6일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주된 의사결정 과제"라면서 "(다만) 체계 개편이라고 볼 정도로 거창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부터)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부터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면서 "체계 개편이 라기보다는 (거리두기)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발견된 일부 세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과정, 정보 공유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개선하자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이 유력하다. 거리두기 4단계와 연계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비 수도권은 밤낮 구분없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MERCEDES-EQ

This is for a new gen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성 서비스센터 (06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원대로 1041(화정동)
서구 신성동 444-2번지 (062) 945-0007 | 광주광역시 서구 양곡동 516-1(수환동)
서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랑대리 603번길 20(소촌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41-009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랑동로 520(수환동)

정부 승인 표준 예비 및 충전
EQ4 25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연간/km/kWh) : 4.1 | 도상 : 4.3, 고속도로 : 3.9 | 1회 충전거리(km) : 306, 공차중량(kg) : 1995, 배터리 용량(kWh) : 6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으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